

축산안정 기반조성을 서두를 때다!

앞으로의 국제사료곡물 시세 및 국내 주요 단미 사료 시세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 만약 곡물 시세를 변동시킬 만한 요인이 있다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류사료 가격의 여하와 소련의 구매량과 구매시기, 미국의 주산지 기상조건 및 그의 곡물 수출국가의 수출여력과 수요국가의 수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지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관세제도의 변경실시로 옥수수, 수수, 타피오카 이외의 품목은 관세가 부과되므로 특히 고열량사료인 우지 등의 수입이 어렵게 되었다. 또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 확보를 위한 수입사료 부담금적립 등의 문제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밝은 전망이다. 이러한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축산인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총매진해야겠다.

조 홍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1. 개요

배합사료가격은 누차 지적한바와 같이 9월 중순까지 가격변동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내 단미사료가격은 곡류사료는 보합세를 강류사료는 강세를 그리고 단백질사료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확보한 옥수수가 9월 10~15일 사이에 떨어지게 됨으로 8월말까지는 최소한 1개모선분이라도 국내에 도착되도록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7. 18일 현재 차기 옥수수 구매가 추진되고 있으나 때마침 소련이 미국산 소맥과 옥수수 1,000만톤 구매설이 나돌아 곡물시세가 들먹이기 시작하여 다소 불리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나 소용돌이 치는 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없이 다소의 급등현상이 야기되는 가운데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러면 사료곡물의 국제동향과 국내 사료업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료곡물의 국제동향

1975. 6월 중순부터 소련이 북미지역으로부터 소맥 및 옥수수등 곡물을 1,000만톤 구매할 것이라는 풍설이 나도는 가운데 6월하순부터는 가격의 소폭적인 변동을 갖어오기 시작하였고 7월에 들어서면서 점차 노골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작황에 따른 기후조건이 예년에 비하여 양호한 가운데 소련의 1,000만톤 구매설에 자극되어 가격의 상승을 갖어오고 있다. 외신이 전하는바에 의하면 소련은 금년 춘기의 고온 및 가뭄으로 당초 수확 목표량 215.7백만톤에 비하여 195.0백만톤 밖에 생산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사실상 1,000만톤의 곡물구매는 불가피하다고 알려졌으며 이에 연관되어 소련이 금을 다량 방매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19척의 곡물수송선을 전세한다는 등 풍설이 나돌았으나 극히 최근에는 미국당국자들이 공공연히 미국의 곡물상들이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곡물거래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련이 연

제 얼마나한 물량을 구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밀과 옥수수의 대풍작이 예상되고 특히 옥수수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앞으로 일기가 양호하여 목표량 수확히 가능하다면 생산지의 옥수수가격은 생산비에 미달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없지 않으므로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서도 미국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곡물수출 진흥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소련의 생산부진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곡물수출의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수출추진을 강행하고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뒷받침으로서 미농무성의 부츠장관은 소련과의 곡물거래를 환영하며 소련은 현금거래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츠장관은 7. 11 상원 농업분과위원회에서도 미국의 음식물가격에 최소한도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내에서 1천만톤의 곡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지난 72년도에 소련이 1,900만톤의 곡물을 비밀리에 구매한 것과 같은 "대 곡물 약탈"현상은 야기되지 않을 것이나 약간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항상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량거래를 막기 위하여 계속 규제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72년도에는 미국이 소련에게 기습적인 대곡물약탈을 당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현재는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모스크바에 가서 곡물상담을 하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실리면에서 선취점을 올리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앞으로 일기만 양호하다면 미국농민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가격이 유지될 것이지 폭등현상은 어느정도 배재될 것이 아닌가 보인다.

나. 미국의 사료곡물 생산현황

1975. 6. 1 현재 미농무성이 발표한 1975년도 사료곡물의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옥수수 파종은 전년도와 동일수준이고 1973년대비 8%가 증가하였으며 77.5백만 에이커중 67.0백만 에이커는 사료곡물을 수확할 예정이고 사료곡물 수확용 면

적은 1973년 대비 8% 1974년대비 3%가 증가 예상되며 수수는 1973년대비 5%감, 전년대비 3%, 증가추세이고 소맥의 파종면적은 1973년 대비 25%, 전년대비 5%의 증가율을 보이고있으며 그중 곡물수확용은 1973년 대비 28%, 1974년대비 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두는 전년대비 파종면적이 2%증가추세에 있어 금년도 미국의 사료곡물 생산규모는 가장큰 년도가 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년도별 에이커당 옥수수 생산량을 보면

1972년도 97부셀

1973년도 91부셀

1974년도 71부셀

1975년도 88부셀로 당초 추정하고 있었으나 옥수수생산자 협회에서는 89부셀을 그리고 미농무성에서는 91부셀을 보고 있는 것 같으며 만약 1973년도의 91.2부셀을 육박한다면 생산규모는 61억부셀(1,549백만톤)에 달할 것이며 전년도 생산량인 1.18억톤보다 약 30%이상 증산될 기대도 해 볼수 있다. 그러나 7월에 접어들면서 소련이 1972년도의 대풍작으로 말미암아 1.9천만톤의 곡물을 해외로 부터 수입한 이후 다시 1천만톤의 밀과 옥수수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으로 부터 수입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도는 가운데 국제시세 조사표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곡물시세가 앙등하고 있다.

<표 1> 1975. 6. 1 사료곡물 재배현황(미국)

종 별		百萬에이커	1974년 대비	1973년 대비	1975. 3/1 계획대비
옥수수	파종면적	77.5	같음	+8%	+3%
	중실용	67.0	+3%	+8%	
대두	파종면적	54.6	+2%		△4%
	"	18.2	+3%	△5%	△3%
연맥	"	17.4	△4%	△9%	
	중실용	13.9	+4%	△1%	
보리	파종면적	9.6	+5%	△15%	△6%
	"	74.4	+5%	+26%	
소맥	중실용	69.0	+5%	+28%	
	목초 수확면적(건초)	61.5	+2%		
{ 알팔파 기타 조사료		(26.7)	같음	△4%	
		(34.8)	+3%	+1%	

다. 국제사료 곡물시세

소맥 옥수수 및 대두박이 미국시카고 곡물 거래소의 선물거래가격을 기준으로한 한국도 착가격을 소개드리면 <표 2>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소맥가격은 7월선적분이 4/15일현재 톤당 \$151에서 5/13일에 \$142, 6/13일에 \$133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6/18일 이후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7/9일에는 \$150을 상회하고 7/11에는 \$161로 거래되고 이후 계속 \$160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와같이 최근의 소맥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소련이 금년 봄에 고온건조한 기후때문에 곡물생산이 계획보다 다소 하락하였고 동구권 공산국가에서도 수확량이 줄어든 결과 미국 캐나다등 북미 지역으로부터 밀을 구매하려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곡물상들이 소련에 머물면서 곡물 거래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소맥이 대풍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972년도에 비하여 금반 소련의 구매예상규모도 크지 않고 미국의 수출능력도 증가하였으므로 1972년도에 있었던 대규모 곡물약탈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옥수수시세를 보면 4/15일현재 톤당 \$136에서 5/13현재 \$135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6/13현재 \$132, 7/14 현재 \$135 그리고 7/15현재 \$139로 소맥에 비하여 안정되어 있으나 6/30일에 \$131까지 하락하였던 시세가 소련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설에 자극되어 차츰 들먹이기 시작하다가 7/9이후에는 미국 농무성에서도 소련의 미국산 곡물수매를 시인하기 시작하자 \$140 수준을 옥박하기 시작하였으나 앞으로 미국의 옥수수생산지대의 기후가 양호하게 진행만 된다면 커다란 가격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의 미국의 대두박시세는 4/15일의 \$214에서 5/13일에는 \$200, 6/13일에는 \$202이든 것이 소맥이나 옥수수가격변동에 구애되지 않고 7/15 현재에도 \$205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같이 대두박시세가 안정되고 있는 것은 소련이 소맥이나 옥수수만을 수입하고 대두나 대두박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점과 단백질 사료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페루의 어분이 예정대로 생산되고 있고 부라질의 대두생산량이 급격한 증가를 보여 단백질 사료사정이 에너지사료 유통에 비하여 수급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료곡물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되는 요인은 대수요국가인 소련이 실지 얼마마한 물량을 구매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기상조건이 농작물 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밖에 제3 국가들이 얼마마한 규모의 사료곡물을 구매하고 또한 제3 수출국가들의 수출여력이 얼마정도인가에 따라 사료곡물시세가 변동되리라 전망되나 1972년도와 같은 시세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의 지배적인 것 같다.

<표 2> 미국의 사료곡물 및 소맥시세 (한국도착기준)

단위 : \$/C&F톤당

선적월 가격형성일자	소					옥 수 수					대 두 박								
	7.	9.	12	75 3	5	7.	9.	12	75 3	5	7.	8.	9.	10	12	75 1.	3.	5.	7.
4/15	151	153	155	158		136	134	128	130	131	214	218	219	220	222	226	228		
5/13	142	144	147	149		135	130	125	127	128	200	202	203	204	206	208	212		
6/13	133	136	139	142	144	132	124	119	122	124	202	204	204	205	208	210	214	214	217
6/18	141	143	147	150	151	135	128	122	124	126	207	209	210	211	213	214	217	217	220
6/23	141	143	147	151	152	136	128	122	125	126	206	207	208	209	210	212	214	215	218
6/30	135	137	141	144	145	131	121	117	119	121	199	201	203	205	207	209	214	215	
7/3	138	140	144	148	150	133	123	119	121	123	203	206	208	209	213	214	217	220	
7/7	139	141	145	149	150	132	123	118	120	122	202	205	206	208	211	214	218	220	
7/9	150	152	156	158	159	135	127	123	125	127	204	208	21	216		218	222	224	227
7/10	154	157	161	165	165	134	127	123	125	127	207	210	212	214	218	220	224	224	227
7/11	161	164	167	171	171	136	130	127	129	131	207	210	213	215	220	221	225	225	227
7/14	157	160	165	164	164	135	128	125	128	130	204	208	212	214	218	220	225	225	229
7/15	160	160	167	170	170	139	130	125	128	130	205	211	213	215	219	220	225	226	229

2. 국내사료업체 현황

가. 배합사료 생산현황

1975. 1~5월까지의 배합사료 생산량을 전년 동기기간과 대비하여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1.9%가 감소한 345,619톤을 생산하였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양계사료의 경우 3.1%가 감소하였으나 육추용사료는 0.5%, 육계용사료는 25.5%가 각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계용사료는 8.5% (30,114톤)가 감소하였고 월평균 6,023톤(약 70만수분)이 감소되고 있다. 배합사료중 가장 현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양돈용 배합사료로서 전년 대비 21%가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감소량은

3,124톤으로서 생돈환산량은 780톤(규격돈 10,000두 해당)이나 된다. 양돈 및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데 반하여 낙농용사료는 39.2% 비육우용 사료는 24.3%가 각각 증가하고 있는바 특히 낙농업이 사료가격 변동이나 축산물 가격변동에 대하여 안정성이 있고 계절변동에 영향을 적게받는 것 같다. 또한 용도별 생산비율을 보면 양계용은 전년도 60.3%에서 59.5%로 그다지 변동이 없으나 양돈사료가 21.1%에서 17%로 크게 감소추세에 있고 낙농용이 12.8%에서 18.2%로 5.4%가 증가하고 비육우용사료가 3.2%에서 4.0%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계용사료에 있어서는 성계용이 43.3%에서 40.4%로 감소경향이다.

<표 3>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 톤

월	별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용	기 타	계
		육추용	성계용	육계용	소 계					
1975	1~4	27,673	111,643	23,076	162,392	46,338	50,870	11,730	3,521	275,151
	5	7,570	28,074	7,704	43,348	11,972	11,940	2,137	1,071	70,468
	계	35,243	139,717	30,780	205,740	58,610	62,810	13,867	4,592	345,619
	%	10.2	40.4	8.9	59.5	17.0	18.2	4.0	1.3	100
1974	1~4	26,948	122,569	16,541	166,058	56,978	35,676	7,901	7,374	273,987
	5	8,114	30,114	7,987	46,215	17,253	9,461	3,254	1,969	73,152
	계	35,062	152,683	24,528	212,273	74,231	45,137	11,155	9,343	352,139
	%	10.0	43.3	7.0	60.3	21.1	12.8	3.2	2.6	100
75/74	%	100.5	91.5	125.5	96.9	79.0	139.2	124.3	49.1	98.1

나. 원료도입계획

9월중순부터 사용하게될 옥수수 10만톤을 구매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농협중앙회 및 한국사료협회 사이에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물량중 5만톤은 8월말부터 9월상순에 그리고 잔량 5만톤은 10월상순 이후에 물량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도입될 것 같다. 7/18 현재 아직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나 7/15현재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가격형성과 선입을 미루어볼 때 톤당 \$135~\$140선에 구매될 것으로 전

망된다. 현재 옥수수의 국제시세가 소련의 구매에 자극을 받아 유동적이기 때문에 10만톤을 일시에 구매할 것이 아니라 5만톤씩을 분할하여 구매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으며 신곡이 출하되면 자연히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므로 12월상순까지 사용할 물량만을 우선 10만톤만 구매하여 수급의 원활을 보장하면 충분하리라 본다.

다. 단미사료시세

7/15일 현재 주요 단미사료시세를 전년동기 및 전월동일시세와 대비해 보면 <표 4>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사료의 종류에 따라 가격

차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년 7/15일시세와 대비 도입옥수수 45.3% 국산옥수수는 31.5%가 상승되고 맥강이 39.4% 탈지강이 26.3% 어분상품이 23.3% 중품이 20% 골분이 9.1%가 각각 상승되었으며 대두박과 소맥피의 가격은 통제 또는 협정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보합세를 유지하고 임박, 호마박, 채종박 및 옥수수 배아박등 식물성박류사료시세만이 3.5%~5.0%가 각각 하락하였을 뿐이다, 또한 전월시세와 대비하여보면 곡물사료시세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박류사료가격과 어분중품등 동 식물성 단백질사료가격이 5~7%가 강류사료 가격이 소맥피의 생산량 감소로 2~7%상승하고 있다. 이와같은 강류사료시세는 소맥피의 생산량감소와 재고격감으로 수급이 원활치 못한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8월부터는 어느정도 소맥분의 가공량이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완화되리라 본다. 그러나 가격면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와같은 사료들이 정책적 사료이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정책여하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바이며 8월중 박류시세는 보합세를 유지하리라 기대된다.

〈표 4〉 주요 단미사료시세표

단위 : 원/kg

사 료 명	서울지방도매시세			대 비 (%)	
	74	75	75	75. 7. 15	
	7/15	6/15	7/15	74. 7. 5	75. 6/15
옥수수(도입)	66 ¹²	96 ⁵³	96 ⁵³	145.3	100
" (국산)	71 ⁵⁰	94 ¹⁵	94	131.5	99.8
대 두 박	127	127 ⁷⁰	127	100	99.5
입 박	79	81 ⁸⁰	76	96.2	92.9
호 마 박	80	81 ²³	76	95.0	93.6
채 종 박	60	68	57	95.0	83.8
옥수수배아박	57	52 ⁷⁵	55	96.5	104.3
맥 강	33	45	46	139.4	102.2
탈 지 강	38	45	48	126.3	107.7
소 맥 피	21	21	21	100	100
어분 (상품)	120	147 ⁶⁰	148	123.3	100.3
" (중품)	100	125 ⁷⁵	120	120.0	95.4
골 분	73 ³⁰	78 ³³	80	109.1	102.1

3. 관세제도의 변경실시

1975. 7. 1부터 수입사료원료에 대한 감면세규정이 개정 실시되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배합사료공급을 위하여 수입된 옥수수등 사료원료는 보세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제조하기만하면 관세가 면세되었으나 1975. 7.1부터는 개정된 관세법 제28조의 2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조공장의 지정) 및 재무부고시 제657호(1975. 6. 29)에 의하여 옥수수 수수 타피오카만이 면세를 받게 되었고 기타 수입사료는 관세가 부과되도록 되었다.

현재 정부의 관세정책을 보면 국내산업보호와 관세수입증대를 목표로 국내생산이 기대되는 품목은 모두 과세하고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이 수요를 전혀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 면세하여 주되 전액면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년도별로 경감율을 정하여 1980년 1월 1일부터는 전면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 수입사료는 옥수수, 수수, 타피오카등 3개품목만이 면세품목으로 지정받았으나 이와같은 수입품목의 년도별 관세경감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언젠가는 다른 관세품목과 같이 년도별 관세경감율의 적용을받아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와같은 관세제도는 곧 사료수급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사료수입은 불량수급면에 있어서의 소요량을 수입충당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으나 소요량의 범위내에서는 적정가격계산에 의하여 유리한 품목을 알맞게 수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관세제도의 변경으로 면세품목이외의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고열량사료(특히 육계용사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우지가 사용되어왔는데 우지와 옥수수의 열량차이는 쉽게 2.5~2.6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수준 이내에서는 옥수수의 에너지원을 일부 우지로 대체하여 사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지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옥수수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내산업보호와 관세수입증대를 위하여는 관

체제도의 변경은 필요불가결의 조치라 하겠으나 사료수급면에서는 문제점도 적지않다. 이 제까지 우리는 사료수입 다변화에 의한 사료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대하여오고 또한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제도변경실시에 따른 이와같은 애로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여 갈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표 5〉

사료별 관세율 비교

단위 : %

종 별	옥수수	수 수	타피오카	호밀, 보리	우 지	당 밀	어 분	대두박	대두수입시 (대두박)	채종박	인삼갈습
관세율	15	20	40	20	20	40	15	20	20	20	30
감 면	15	20	40	0	0	0	0	0	10	0	0

4. 사료의 품질관리방향

개정된 사료관리법(1975. 12. 26개정공포) 동법시행령(1975. 4. 11개정) 및 동법시행규칙(1975. 5. 243개정)에 의거 사료의 품질관리방향이 종래의 배합사료의 품질관리에서 주요 단미사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는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단미사료의 규격화 실시가 이루어지도록 되었다. 앞으로 규제를 받게 될 단미사료제조업은,

1. 정부관리양곡 또는 수입양곡의 가공업
 2. 미강착유장려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정업 또는 착유업
 3. 녹사료분말 및 해조분사료의 제조업
 4.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제조업
 5. 무기물사료 제조업
 6. 우도분 및 육분 또는 육골분사료 제조업
-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단미사료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받아야하며 또한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의 성분등록을 마친다음 성분보증표를 첨부하고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 앞으로 규제를 받게될 단미사료의 종류는 우선 탈지강정부 관리양곡 부산물 민수도입 소맥가공부산물 어분(상, 중, 하품) 어즙흡착사료 우도분 육골분 육분 골분 대두박 인삼갈습제 대용유등으로 제한되며 차츰 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5. 가격전망

국제 사료곡물시세나 국내 주요 단미사료시세를 감안할때 다소의 가격변동은 불가피하겠으나 커다란 가격변동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배합사료가격은 방위세부과등 이외의 별다른 요인이 없는한 9월상순까지는 유지될 것이고 이후 가격은 앞으로 구매하게 되는 옥수수가격이나 이제까지 불발상태로 도사리고 있는 강류사료가격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곡물구매는 첫째는 소련의 구매수량과 구매시기에 따라 그리고 둘째는 미국의 사료곡물주산지대의 기상조건에 따라 이밖에 제 3 곡물수출국가의 수출여력과 수요국가의 수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지어지겠으나 종래와 같은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리고 앞으로 배합사료가격에 영향을 가져올 새로운 요인은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 확보를 위한 수입사료부담금 적립을 들 수 있겠으며 이와같은 수입사료부담금의 적립은 장래에 가서는 양축가에게 다시 환원되는 것이므로 우선 수입사료 가격의 상한선 고정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으나 배합사료가격의 안정선 유지와 적정이윤 추구가 보장된다면 이보다 바람직한 결과는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제까지의 소용돌이치던 사료파동과 축산물가격파동을 어느정도 완화시킬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같은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의 축산업의 안정적발전이 보장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다같이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